제93호
2026.01.12
mbcsau.com

MBC 사우회보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발행처 : (사)문화방송사우회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3 TEL : 02-722-7416 E-mail : mbcsau@mbcsau.com 발행인 : 양영철 편집장 : 윤영무

존경하는 사우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강한 기운을 받아 활기차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녹록지 않은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 언론도 지상파 방송 등은 미디어 업계의 지각변동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정인 MBC는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로서 위상을 다지고 있습니다. 선배 사우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MBC라는 둥지 속에서 수십 년간 고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사우회를 통하여 평생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회는 MBC 출신이면 당연히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연부역강한 후배들이 사우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동참할 때 사우회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선후배 사우 여러분이 쌓아온 경륜과 지혜 그리고 인맥 등은 사우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사우회와 동행하여 주실 때 사우회는 발전합니다.

올해도 저희 사무처는 사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심껏 모시고, 모든 행사에 사우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병오년 새해 사우회장 양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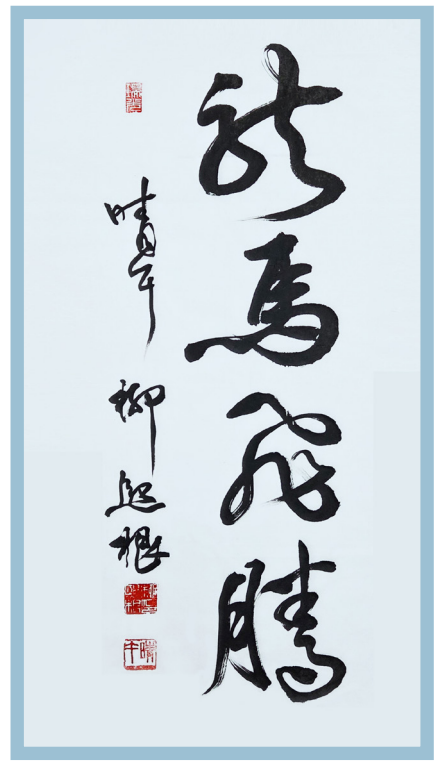
신년축하 휘호

龍馬飛騰(용마비등)

"그동안 쌓아 온
사우회원들의 실력과
경륜이 붉은 말의 해를
만나, 마침내 하늘로
솟구치며 힘차게
날아오른다" 는 뜻.

사우회원 여러분께서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뜻입니다.

작가: 청오 유희근(보도)



본사 소식

MBC, 핵심 타깃을 '2049 시청률'에서 '2054 시청률'로

■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2025년 방송콘텐츠 대상'에서 비드라마 시리즈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프로에서 은퇴했거나 방출된 선수들로 구성된 '필승 원더독스'팀의 성장 과정과 선수들의 인간적 서사를 입체적으로 담은 김연경의 구단 창설 프로젝트다.

■MBC는 올해부터 TV 이용률과 콘텐츠 소비 참여도가 높은 50~54세 연령층을 핵심 지표에 포함해 핵심 타깃 지표를 '2049 시청률'에서 '2054 시청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와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핵심 시간대 및 콘텐츠 경쟁력 평가를 2054 시청률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MBC 괴기 공포 토크쇼인 〈심야괴담회〉 시즌5가 '2025 펀덱스 어워드' TV 교양/정보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펀덱스 어워드는 TV와 OTT 콘텐츠를 대상으로 화제성과 경쟁력을 데이터로 평가해 분야별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다.

www.fbc.or.kr

MBC와 늘 함께하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품격있는 방송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로서
MBC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고의
공영방송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진흥, 학술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신년인터뷰

공영방송의 가치 시장에서 증명할 터

안형준 MBC사장

공영방송 MBC가 올해 새로운 경쟁 방정식을 만들어 간다. 본사 안형준 사장은 사우회보와 가진 신년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는 "외부 환경에 책임을 돌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시장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가보지 않은 길은 일하는 방식의 창의적 변화,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올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자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확보하고 확장하는 데 매진해 새로운 영역에서 성과를 냄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작품'이 아니라 '자산'으로 만드는 힘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다음은 안형준 사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요약한 것이다.

MBC K-컬처의 글로벌 플랫폼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취임 이후 줄곧 MBC가 '글로벌 IP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해 왔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IP의 유통 경로를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시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지였다. K-컬처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훌륭한 IP라 생각했고 IP는 좋은 플랫폼, 팬덤과 만날 때 확장성과 파괴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K-컬처 전체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스튜디오 K〉를 추진하게 됐다.

〈스튜디오K〉란 무엇이고 세계로의 진출 계획은?

〈스튜디오 K〉는 K-콘텐츠와 K-POP, 패션, 뷰티, 푸드 등 K-컬처 전체를 다루는 복합 수익구조모델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1월,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세계 3개 지역에서 사업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고 오는 4월부터 각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스튜디오 K〉는 문화방송 IP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콘텐츠 기업을 넘어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이 될 중장기 플랫폼 사업이 될 것이다.

글로벌 OTT와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프리바이 판매를 통한 수익의 안정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OTT뿐만 아니라 복수 플랫폼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매출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부터 MBC 주요 콘텐츠가 티빙에도 교차 공급될 예정이며 볼륨딜, 포괄적 사업제휴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업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선보일 글로벌 텐트폴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시작으로 제작-마케팅-부가사업-글로벌 유통을 연계하여 콘텐츠 경쟁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I 전환 성과로 기대되는 변화는?

방송사 최초로 AI 전략 부서를 신설하여 AI 전환에 노력해 온 결과, 디지털 유통을 위한 자동 쇼츠 제작, 라디오 뉴스 AI 보이스 도입, 지방선거 활용을 위한 공공인물정보시스템 개발, 심의의 1차 단계를 책임질 심의 AI 등이 나오고 지난해 말에는 AI 기술로 리뉴얼한 MBC 아카이브 플랫폼을 론칭했다. 이처럼 기술과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길이 계속 열리게 될 것이다.

올해 MBC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다면?

전통적 광고 시장의 구조적 축소, 자본을 앞세운 거대 글로벌 OTT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 콘텐츠 생산 비용의 급증에 AI라는 거대한 물결까지,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일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시장에 영업하는 조직, 채널의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증명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 어려운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MBC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자산인 사우회가 본사에 힘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MBC 사우회는 그 누구보다 MBC에 대한 애정과 로열티가 높으신 분들로 이뤄진 조직이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많은 힘이 된다. 제 임기 중에도 난제에 부딪혔을 때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시고 실질적으로 나서 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우회가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와 유무형의 자산을 본사에 연결하는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신다면 본사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다. 더불어 MBC가 논란이나 정치적 압박 등의 어려움에 처할 때, 원칙을 가지고 비판하고 지지하는 '신뢰의 방파제'로서 MBC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점은 따끔하게 조언해 주시라.

사우들과 MBC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강한 콘텐츠 경쟁력과 혁신적인 경영 전략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이어가겠다.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우리 MBC의 변화와 도전을 응원해 주시라. 때론 채찍질을 해 주시고 어려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선배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토대 위에서 글로벌 미디어 혁신 그룹으로의 도약을 우리 MBC인들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MBC의 저력을 우리 서로 믿고 더 나은 새 시대를 위해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갔으면 한다.

축약/정리: 편집장 윤영무

눈 내리던 저녁, 다시 모인 우리의 MBC

2025년 사우회 송년의 밤이 지난달 4일 저녁 5시부터 아모리스 역삼 연회장(GS타워 1층)에서 열렸다. 370여 명의 사우들이 크고 넓은 연회장에 놓인 49개의 대형 원탁에 부문별로 둘러앉은 가운데 강영은 아나운서의 노련하고 따스한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양영철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언제나 사우회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사우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사우회를 지원하는 본사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언론사 사우회로는 처음으로 실시한 AI 교육은 사우들이 ChatGPT의 혁신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밝히고 "동시에 젊고 패기 넘친 27명의 후배가 사우회에 새로 합류하는 등 사우회는 더 탄탄한 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서 행사장 4방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모니터를 통해 본사가 준비한 「2025년의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했고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본사 후배들을 박수로 응원했다.

이어 진행된 축하 케이크 커팅식에서는 양영철 사우회장을 중심으로 강성구 전 사장, 장명호 전 사우회장, 차인태 고문이 손을 함께 얹고 칼을 내려, 올 한 해를 지켜온 사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건배사에 나선 장명호 전 사우회장은 MBC가 창사 기념품으로 쌀을 지급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1977년 전년도 법인세가 22억 원으로 MBC는 전체 기업에서 3위였지만 사원들의 보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 급기야 〈자랑스런 22억〉 이라고 쓴 검은 리본을 달고 사원들이 급여 반납 시위를 했는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쌀 지급이 시작됐다" 면서 "MBC의 건강한 발전, 사우들의 편견 없는 우정을 위한" 건배를 제안했다.

메인 메뉴로 최상급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가 나온 가운데 사우들의 정겨운 식사가 끝나자, 행사에 함께 한 본사 안형준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신 선배님들의 은덕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안 사장은 "본사가 시청률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청률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AI 전환에 따른 업무 변화, 콘텐츠 혁신, 그리고 MBC 스튜디오-K를 통한 해외시장 도전 등에 기대하고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 엄영수 개그맨은 "결혼 3번, 이혼 2번, 총 5번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입담을 시작으로 30여 분 동안 스탠딩 개그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1981년 29살의 나이로 MBC 개그콘서트에서 금상을 수상한 그는 MBC 코미디 프로그램인 「청춘 만세」에서 활약했고 코미디언협회장을 23년간 역임했다. 그가 데뷔 초기 MBC의 한 임원에게서 들은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휴머니스트가 되라"는 한마디는 평생 좌우명이 되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뇌경색을 이겨낸 박영민 사우가 휠체어를 타고 부인과 함께 참석했다. 그의 밝은 표정과 굳은 의지에 많은 사우가 감동했고, 그가 다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

본사 다이어리와 화장품 세트를 기념품으로 받은 참석자들은 갑작스레 눈이 내리던 저녁, 도로에 갇힌 서유석 씨의 공연이 취소되어 아쉬웠지만, 또 한 번 MBC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한 해의 노고를 건네고 새해 건승을 기원하며 행사를 마쳤다.

행사의 문을 여는 자원봉사 사우들

축하 케이크 커팅식

엄영수의 식후 스탠딩 개그

함께해서 더 든든한 세월

혹시 내 사진도 가지고 있나요?

MBC의 얼굴을 기록한 박영태 사우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동안 뉴스센터 스튜디오를 드나들었다면 특히 앵커, 출연자, 아나운서, 제작진의 얼굴 사진은 그가 100%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경조사에서 카메라를 든 그를 봤다거나, 2014년 사우회에서 신사옥을 방문할 때 있었다거나,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었다면 연락해 보시라! 아마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여러분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지 모른다-이름만 대면 휴대폰에 저장된 해당 사진을 즉석에서 보여준다.

2025년 송년의 밤 행사 때, 시간 간격을 두고 행사장을 3번씩 돌아 늦게 온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룹 샷을 포함해 370명이 넘는 참석자를 촬영했다. 셔터 한 번 누를 때마다 찰칵, 찰칵, 찰칵, 3장씩 찍히는데 이 과정을 2~3번 거치니까 거의 3천 장 이상을 찍는 셈이다. 가장 좋은 컷을 딱 한 장 고르기 위해서 말이다. 사우들에게 이름표를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촬영했는데 사진만 봐서는 "이분이 누구더라?" 얼굴도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찍힌 여러분의 사진은 위 제목 옆의 QR코드나 url https://photos.app.goo.gl/YiNqTR2cvnYxsN4m6 을 통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MBC를 은퇴한 후 방송연예과 교수를 했던, 그리고 지난해 연말까지 근무했던 혜화역 부근,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를 구경하면서 앵커였던 정혜정, 김주하, 현인아, 김혜은(기상캐스터) 씨 등과 사진으로 맺어진 일화와 엄기영 앵커와의 인연,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선거 포스터 사진을 자기가 촬영한 사진으로 쓰게 된 사연을 들었다.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 오디션 때 쓰라고 주었다고 했다.

"사진 봉사를 하려면 힘이 들 텐데요?" "밥도 못 먹어요. 프로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지요. 그저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테이블을 다니며 뭇사람과 인사하고 악수를 나눌 수 있으니 좋지요. 안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테이블 한곳에만 앉아있었겠죠"

1991년 4월부터 1994년 6월까지 LA에 있는 「MBC AMERICA」 창설멤버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사진을 공부했던 그는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 사진을 디지털로 바꿨다고 하니, '내 사진이 궁금하신 분'은 사진에 대한 열정이 변함없는 그에게 확인해 볼 일이다 .

☎ 010-9105-2127

사우탐방

대한민국 오페라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김영철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조직위원장

진주MBC 사장, 강원민방 사장, 그리고 국회 방송기획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김영철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조직위원장을 인터뷰하고 나서 나는 캄캄한 밤에 작은 등불을 얻은 듯하였다. 여기에 양영철 사우 회장이 보내주신 문화부장 시절 읽었다는 오페라 관련 책의 일부 내용과 '1948년 조선오페라협회 제1회 발표회인 「La Traviata-춘희(椿姬)」', '1950년 5월, 현제명(Rody Hyun) 작곡의 대(大)오페라 「춘향전」' 의 포스터를 보는 순간, 전쟁이 터지기 직전까지 이 땅에서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꿈꿨던 선구자들의 모습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우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백발이었지만 이야기를 요약하는 언변이 뛰어나고 혈색이 좋으며 뼈대가 굵직한,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배우 같았다.

"제가 관여하는 오페라대상 조직위원회는 국내 민간 오페라단 수십 개가 투자해 만든 협동조합이랄까, 일종의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오페라는 이처럼 민간 차원의 단체와 국립오페라단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 역할은 민간에 대한 오페라 투자가 미미한 상황에서 공연 기회를 늘리고 1년에 한 번, 오페라대상을 통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성악 하는 의사 이인선, 우리나라 오페라 개척

그는 우리나라 오페라 개척자인 테너 이인선(1906~1960)을 떠올렸다. 세브란스 의전을 나와 황해도 황주에서 개업의를 하다가 1934년 성악 공부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유학을 떠난 이인선은 1937년 귀국 후 서울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청사)을 비롯하여 일본 도쿄, 중국 칭다오 등지에서 독창회를 열었고 "동양 최고의 테너"라는 명성을 얻었다.

성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함경남도에서 개업의를 하면서도 국내 최초로 1948년 1월, 「La Traviata」에서 부르주아 가문의 아들, 알프레드 제르몽 역을 맡았다. 상대는 사교계의 여인, 비올레타 역을 맡은 김자경(1917~1999, 이화여대 음대 교수, 우리나라 민간 오페라의 기반을 마련)이었다. 그러다가 이인선은 1950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 성악과 의사를 병행하다 갑자기 간염으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54세로 타계했다.

1860년대 유럽의 오페라 극장마다 눈물과 환호를 불러낸 「La Traviata」는 비올레타가 폐결핵으로 사랑과 희생의 삶을 마감하지만, 두 주인공이 부르는 '리비아모 (잔을 들자).... 로 시작하는 '축배의 노래'를 안 들어 본 사람은 없을 터이다.

"올해가 이인선 탄생 120주년이라서 「La Traviata」 공연을 가을에 열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남녀주인공을 지난해 오디션으로 뽑았고요, 이 공연에 앞서 3월 3일에는 국립극장에서 축제 분위기로 오페라 공연-갈라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오디션을 해야 할 만큼 인재들이 많나요?"

"해외 유학을 다녀온 기량 넘치는 성악가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들을 지원할 재원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특히, 대본 작가, 아리아(aria, 독창곡) 작곡가를 영입할 재원이 여의치 못한 게 최대 약점입니다"

"어떻게 헤쳐 나가실 계획인가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공연을 교섭 중이고, 2027년을 목표로 제1회 세계 창작오페라 대회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한국오페라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노력

오페라의 발상지인 이탈리아는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에 연간 수백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의 1년 예산은 백억원이 채 안 된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는 해방 이후 「춘향전」을 시작으로 「왕자호동」, 「원효」, 「심청」, 「흥부와 놀부」, 「금강」, 「처용」, 「선비」, 「시집가는 날」, 「봄봄」, 「나비의 꿈」 등 지금까지 190여 편에 이른다.

아직은 ▲「La Traviata」 ▲집시여인 카르멘의 사랑과 욕망을 다룬 「카르멘」 ▲파리 뒷골목에 사는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가난을 그린 「라 보엠」 ▲기지 넘치는 이발사 피가로의 유쾌한 희극 「세비야의 이발사」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 온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의 비극을 다룬 「아이다」 등의 세계적인 오페라의 레퍼토리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이야기와 음악성, 무대의 힘은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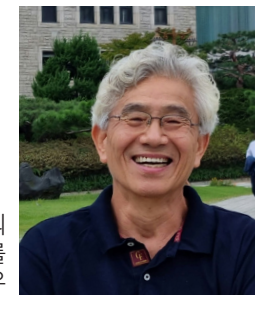
그는 지난 달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거행된 「제18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시상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오페라 중심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면서 "오페라인들의 꾸준한 열정이 그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상은 누오바 오페라단의 「라 보엠」이 차지했다.

제18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수상자들과 함께

'어느 오페라가 됐건 가사가 귀에 들어올 수 있다면 좋을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광화문 거리를 걷던 나는 문득 김 위원장의 어깨가 무겁겠다는 걱정을 했었지만 오히려 그 무게만큼 길은 단단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페라는 120년 전부터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음 막을 준비해 왔으니까.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경아르테 TV」 채널에서 방영하는 오페라 「아이다」에 잠시 마음을 내주게 되었는데 한 여성과 나라의 비극적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이런 거지?" 혼잣말처럼 되뇌다가 오페라는 말로는 다 옮길 수 없는 감정의 심연으로 우리를 조용히 데려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게 오페라의 힘이었다.


한국오페라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꿈꾸는 김영철사우

인생 3막

관심과 참여가 종중을 바로세운다

평산신씨 정언공파종중 (平山申氏 正言公派宗中)

신승철
사우회 이사

18년 전 정년퇴직을 한 뒤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그는 지금 평산신씨 정언공파 종중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사무처장이다. 그를 만나기 위해 경의중앙선 강매역에서 내린 나는 마중 나온 그의 차를 타고 종중 사무실로 가면서 평산신씨의 연원을 들었다.

"우리 시조는 대구 동수 전투에서 왕건을 피신시키고 대신 전사한 고려의 개국공신, 신숭겸 대장군입니다. 시조로부터 15대손에서 19개 파종중(派宗中)으로 나뉘었는데 정언공파도 그중 하나로 정언공 신효(申曉)를 파조(派祖, 중시조)로 모시고 아래로는 52개의 소종중(小宗中)이 있습니다.

파조 어른은 태종 2년(1402)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사간원의 우정언으로 있었는데 탄핵을 받아 연백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다시 벼슬을 제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강매동 강고산 자락으로 낙향하셔서 묘소와 종중 사무실이 이곳에 있는 거지요"

평산신씨 정언공파의 '정모재'

종중 사무실에서 오른쪽으로 재실인 정모재(正慕齋)가 있다. 궁궐 건축 양식을 본떠 장중함이 느껴진다. 1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 착공한 지 13년 만인 2016년에 준공했다.

사무처장은 종중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데 종중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종중 운영은 혈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임원회의·상임이사회·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만 종중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다 보니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집행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사욕을 배제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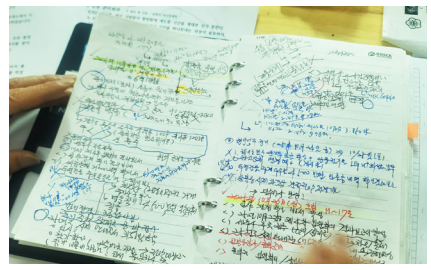
사무처장을 맡은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과거 임원진들의 일 처리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의결 이후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절차만을 내세워 시정을 회피하고 일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때 고민스럽지요. 상임이사와 종중 회원들 모두, 보다 책임감 있게 종중 일에 임해주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어서 아쉽습니다"

정직.성실.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신 사무처장

임원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막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성이 부족한 사안을 전문가에게 자문받고 종중 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는 책임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중 수입의 근간이 되는 건물 임대의 경우, 사무처장이나 부사무장 중 한 사람이라도 건물 관리에 대한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울러, 종중 부동산(특히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낮춰 임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건물 보수를 할 때 외주보다 자체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빈틈없이 매일의 종중업무를 기록한 노트

종중의 전통과 시대의 변화 사이에서 사무처장으로서 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청년 종중회원들에게 종중의 일을 홍보하여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선대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종이 족보를 전자 족보로 전환한 것, 그리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정확히 읽고 3동의 건물을 매입한 결단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종중의 기본 사료와 사진을 실어 젊은 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조의 은덕과 연원을 알 수 있도록 저의 제안으로 탁상용 달력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작은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종중 회원들이 시제에 참석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시제에 참석하는 일은 자기 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나는 종중의 일원'이라는 분명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 종중 재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이 어렵고 장학금, 각종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중의 수익과 재산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었는지 여부지요. 은퇴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족보나 종중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지요"

정언공파 시제 모습

문중 재산을 관리하고 조상 제례를 지내며 족보를 편찬하는 종중의 역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편, 조선 후기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한 가문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그리고 지파별로 효율적인 조상 제례와 재산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종중은 더욱 세분화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전국에 3만 개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종중과 족보가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오래된 방식이 단절된 세대를 잇는 현대적 해답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와 인터뷰를 마쳤다. 그때 서야 비로소 수많은 족보가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의 오랜 질문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회/원/동/정/

양영철 사우회장 MBC 창사 기념식에 참석

양영철 사우회 회장은 지난달 1일 본사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창사 제6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기념식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심미선 시청자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방문진 이사장의 축사, 그리고 공로상/우수상/계열사 작품상 등의 시상과 안형준 사장의 기념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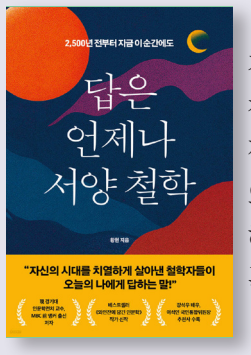
안사장은 "변하지 않는 가치는 국민 편에 서는 공영방송"이라며 "한 시대를 함께 걷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난잎에 베이다』 출간 기념 북 콘서트 성황리에 개최

박찬순(편제) 사우가 지난달 30일, 불광동 소재 이호철문학관에서 주철환 PD의 사회로 자신의 첫 장편소설 『난잎에 베이다』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열었다. MBC 선후배 동료들과 독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사우는 뽀빠이, 맥가이버 등 자신이 번역한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소설의 모티브가 된 안동시 단원로(檀園路 단원 김홍도가 역참 담당 찰방 벼슬을 한 것을 기려 명명한 도로명) 등 소설 속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눴다.

『답은 언제나 서양철학』

황헌 사우의 쉬운 철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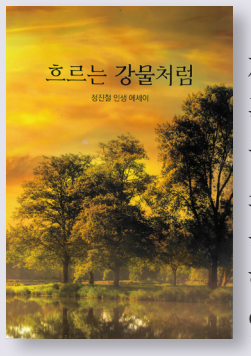


황헌(보도) 사우가 『답은 언제나 서양철학』이라는 신간을 냈다. 소크라테스에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의 흐름을 유럽의 역사와 철학자들의 삶에 겹쳐, 가장 쉬운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철학이 어렵다는 선입견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사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한 마디로 철학서임과 동시에 한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서로 읽어도 좋을 듯하다.

신간안내

『흐르는 강물처럼』

정진철 사우의 인생에세이



정진철사우가 구순을 맞아 인생 에세이를 출간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 속에서 친형을 잃는 깊은 상처를 딛고, 대한뉴스·KBS·MBC를 거치며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아왔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에 얽힌 제작 비화에는 현장을 향한 집요한 신념과 저널리즘의 치열함이 담겨있다. 한국 방송사 곳곳에 새겨진 한 언론인의 흔적을 조용히 엿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혜숙(관리)
11월 2일 별세,
향년 93세
1967년 시설국 입사
교환실 근무

변웅전(ANN)
11월 25일 별세,
향년 85세
1969년 아나운서 입사
아나운서실장
MBC예술단 사장
제15,16,18대 국회의원

임성기(편제)
12월 29일 별세
향년 93세
1969년 경력 PD 입사
TV편성국장, TV제작국장
문화방송 감사
대전방송 사장

MBC사우회 협약업체
세란병원 건강검진센터 1577-0196
C&G라이프 상조서비스(박성준 대표) 010-8761-6643
네오블루매 플라워(박건미 대표) 010-3343-8973
JC빛소망안과(여의도) 전용예약 콜센터 02-785-1068

경조사항

팔 순: 이연구(업무) 47.01.18. 심우승(편제) 47.01.22. 한숙동(편제) 47.01.23.
김수량(고문) 47.01.28. 박건칠(기술) 47.01.30. 최성근(편제) 47.02.02.
전용수(편제) 47.02.12. 배상석(편제) 47.02.18. 신낙균(편제) 47.02.27
김명수(편제) 47.03.05.

고 희: 박임실(기술) 57.01.20. 권영화(기술) 57.01.20. 김종한(관리) 57.01.23.
정관웅(보도) 57.02.04. 오문환(편제) 57.02.08. 조중현(편제) 57.02.09.
이우호(보도) 57.02.10. 오성수(편제) 57.02.13. 안창균(관리) 57.02.14.
전영배(보도) 57.02.15. 이명자(편제) 57.02.20. 강세영(편제) 57.02.20.
정영철(관리) 57.03.01. 윤길용(편제) 57.03.03. 이인용(보도) 57.03.08.
정중희(기술) 57.03.10. 이재훈(기술) 57.03.15.

회 갑: 김은혜(관리) 66.02.08.

결 혼: 정동영(보도) 아들 12.20 이영자(관리) 따님 12.20

부 음: 지수환(관리) 장모상 11.07 오영근(관리) 장모상 11.11 전인하(보도) 장모상 11.17
봉필호(보도) 장모상 11.18 윤주혁(관리) 장모상 11.23 김형구(편제) 모친상 11.26
손관승(보도) 모친상 11.28 오성수(편제) 장모상 12.08 서복희(관리) 모친상 11.22
송일준(편제) 장모상 12.27 이재은(보도) 모친상 12.31

연회비

평생회비 : 송병희(관리) 양영호(기술)

2023년: 추성춘(보도)

2025년: 이종숙(관리) 정명모(기술) 최용원(편제) 김승수(편제)
한승영(기술) 고창근(ANN) 이명숙(관리) 이종현(편제)
김규홍(관리)

2026년: 나종석(보도) 김광민(관리) 김은혜(관리) 박병완(기술)
채애림(관리) 박종진(편제) 박화진(편제)

2027년: 김만기(편제)

주소변경/신규

편제 강현식 경기 광명시 광이로 49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장근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36 (백석동, 브라운스톤)
박우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29 (판교동) 한림아파트
박춘평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35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보도 진홍상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90 (전농동, 전농우성아파트)
조헌모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105번길 12-4 (덕풍동)
최근식 서울 양천구 월정로13길 6-2 (신월동)
오태돈 경기 광주시 문형산안길 49-23 (신현동)

기술 곽재석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21번길 43 (일산동, 일신삼익아파트)
김형국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4길 18 (봉천동)
박병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126 (영덕동, 흥덕힐스테이트아파트)
박진석 인천 서구 경서로55번길 10-24 (경서동) 보성프레리
홍환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33 (중동, 스프링카운티자이)
양영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41 (마두동, 백마마을1단지아파트)

관리 신견옥 서울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이보근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50 (주안동)
송병희 서울 동작구 알마타길 53 (대방동, 대방2차 e-편한세상)

기고

860km를 끝까지 걷는다는 것

김규홍 (관리)

경기둘레길 860km를 배낭에 담은 김규홍사우

걷기는 인간과 세상의 대화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자동차로 10시간 정도면 될 경기 둘레길 860Km, 서울-부산 왕복 거리보다 긴 그 길을 2년 2개월간 비번(非番)인 날을 골라 나 홀로 걷고 또 걸으며 경기 둘레길 60개 코스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확인하는 120번의 스탬프를 패스포트에 찍었다.

모든 칸을 채운 패스포트를 수원에 있는 경기 둘레길 안내 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냈다. 그곳으로부터 완주증과 패스포트를 다시 우편으로 받아 든 순간, "드디어 해냈다!"고 억눌렸던 기쁨이 폭죽처럼 터졌다. 아내는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희열은 잠시였다. 그동안 흘린 땀과 걸음을 멈출 뻔했던 고비의 시간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는 게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우의 둘레길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023년 4월 어느 날이었다. 여주 여강길을 혼자 걷다가 한 도보 여행자로부터 우연히 경기 둘레길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순간, 도전해 보자는 마음이 일었다. 그동안 산을 다니며 다져진 체력이나 경험이라면 완주할 수 있을 듯했다.

김포 대명항에서부터 시작된 걷기는 교통편이 애를 먹였다. 하루 평균 4~5시간의 도보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느 코스 건 새벽 첫 차를 타고 출발 지점에 가야 했고, 도보에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서 코스마다 도착 지점의 교통편을 알고 가지만 늘 버스 시간에 대기가 어려웠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집에 들르지 않고 웬만하면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곧바로 출발했고, 사전에 램블러(Ramblr) 앱이 제공하는 코스와 교통정보를 숙지했다.

그러나 어느 코스이건 이정표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 혹은 나뭇가지에 묶어 놓은 둘레길 리본을 찾기 어려운 구간을 여러 번 만났다. 그럴 때마다 램블러가 삐삐삐~ 비상음을 울려 대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움이 생겨 마음의 평정이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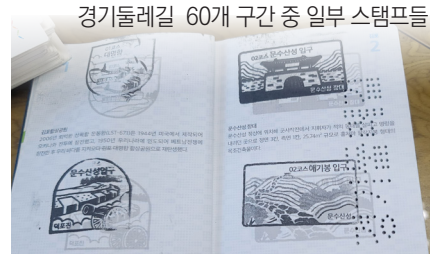
예상치 못한 일로 도착 예정 시간을 초과하면 하루 3~4회밖에 운행하지 않는 마을버스는 여지없이 끊겼다. 눈이 온 어떤 날은 버스마저 오지 않았다. 전체 60개 코스 중 10여 개 코스에서 택시를 부르거나,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얼추 7~8km를 걸어가야만 했다.

아침은 미리 준비해 도보 중에 먹었고 점심은 주로 읍내에서 해결했다. 35리터짜리 배낭에 간식과 물, 우비, 우산, 땀에 젖었을 때 바꿔 입을 여벌의 옷, 수건, 구급약, 예비 배터리, 그리고 겨울에는 아이젠, 방한복 등 필수품만 넣어 가능한 한 무게를 줄였다.

육중한 멧돼지를 만나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고, 갑자기 눈이 내려 길을 못 찾고 포기했다가 재도전하기도 했었다. 발바닥과 발목 통증이 심해 중단의 유혹을 받았던 코스가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걸었으며 산길이 포함된 최장 코스를 장장 9시간 10분의 사투 끝에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겨우 스탬프를 찍었다.

걸을 때 리시버를 꽂고 가요와 영어회화를 들어서 외롭다는 느낌은 없었다.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려왔고 복잡한 생각을 정돈할 수 있었다.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눈치를 보거나 잡담을 나누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길을 걷다 겪은 우여곡절을 어찌 이 글에 모두 담을 수가 있겠냐만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의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길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걸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길은 끝나는 법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걷는 자에게 언제나 끝을 내주니까 말이다.


경기둘레길 60개 구간 중 일부 스탬프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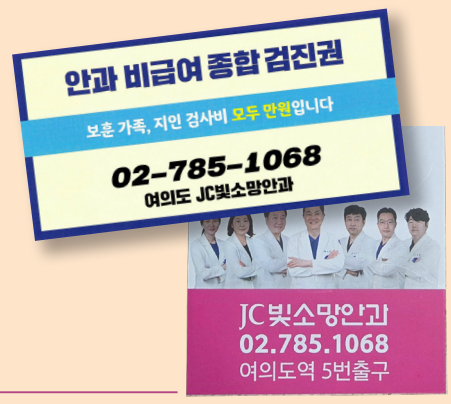
송병희(관리)
1991년 관리직 입사
인사, 기획, 예산 등 담당
기획예산부장,
경영지원국장
2025년 정년퇴직

양영호(기술)
1987년 기술국 입사
영상기술부, 종합편집실,
뉴스센터 등 근무
중계, 뉴스센터 기술감독
2025년 정년퇴직

WELCOME

◆ 안과종합검진비용 우대권

사우회 협약기관인 JC빛소망안과(여의도역 인근)가 사우들을 위해 안과 종합검진 비용 우대권을 다수 기탁해 왔습니다. 검진이 필요한 사우께서는 사우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면, 우대권(8만 원→1만 원)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우 여러분의 건강한 눈 관리를 위한 검진료 우대 혜택에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오페라 갈라쇼 VIP 관람권

사우회는 오는 3월 3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질 「2026 대한민국오페라 대상 수상자 음악회(일명 Opera Gala Concert)」의 VIP 관람초대권(20만 원 상당) 다수를 「대한민국오페라대상조직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총회(2월 26일)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으로 1인 2매씩 가급적 많은 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11월 06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mbcsau.com) 에 있습니다

박찬순(편제)
신간서적 50권

석남수(기술)
30만원

오성수(편제)
30만원

윤만석(관리)
20만원

조강래(업무)
20만원

김규홍(관리)
20만원

백하현(관리)
10만원

정호준(기술)
10만원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정동레터

♥ "....원래 1500매 매였는데..." 지난 호에서 '매'자의 중복을 제일 먼저 찾아낸 이시권(편제) 사우에게 스타벅스 상품권(2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번 호에도 오탈자 찾기는 계속됩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도전!

♥ 하늘도 참 무심하시다. 가수 서유석 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현장 음향, 지하철 동선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송년회를 준비했건만 도로를 막아버린 기습폭설이 야속하다 야속해!

♥ 수백 번 붓을 들어 겨우 건졌다는 신년 휘호 '용마비상', 한지로 곱게 싼 작품과 함께 작가의 이야기 한 편과 입담까지 따라왔다. 이쯤 되면 작품보다 작가가 문화유산이지 않을까 싶다.

♥ 박찬순 사우의 장편소설 '난잎에 베이다' 50권을 하루 만에 완판한 사무처. 출판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만도 하네요. 책을 사주신 사우 여러분과 사무처의 노고, 그리고 기탁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발전기금을 내주신 분들과 사우회 기여자께 MBC 다이어리를 보내드렸습니다. 편집부

박희순
지 성
원진아
무 너 진 정 의 , 돌 아 온 판 사
MBC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
2026.01.02 [금] 밤 9시 40분 첫 방송
★★★ 2026 MBC 드라마 LINE UP ★★★
<찬란한 너의 계절에>
연출 _ 정상희, 김영재 / 극본 _ 조성희
주연 _ 이성경, 채종협
<21세기 대군부인>
연출 _ 박준화, 배희영 / 극본 _ 유아인
주연 _ 아이유, 변우석
<오십프로>
연출 _ 한동화 / 극본 _ 장원섭
주연 _ 신하균, 오정세, 허성태